

杏源里의 民間信仰

高 光 敏*

一. 행원마을 개관

행원마을은 단일자연취락으로 행정구역상 北濟州郡 舊左邑에 속한다. 제주도 해변에 속해 있는 여타의 마을들과 같이 전형적인 半農半漁村이다.

그 옛날 이 마을 터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사농물'이라고 하는 생수가 해변가에 있다. 제주도 어느 해변마을에도 있듯이 이 물은 지반 밑으로 빠진 물이 해변을 향하여 땅속으로만 흘러내리다가 해변에 이르러서야 솟아오르는 물이다. 사농물, 이름 그대로 사냥물, 생수의 명칭이 이렇게 붙여진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촌로들의 말에 따르면, 이 터전에 채 사람들이 모여들어 살기 전이었다고 한다. 그 때만 하더라도 이 마을로부터 남쪽, 곧 한라산쪽으로 넓은 들판 여거 저기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사냥은 배놓을 수 없는 삶의 한 수단이었고, 사람들은 산돼지를 해변까지 몰아다 잡았다. 쫓겨 온 산돼지들은 우선 생수가 있는 바로 이 '사농물'로 모여들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그 생수가 '사농물'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행원마을의 이 터전

* 민속연구가

은 바로 그 옛날 사냥터였다는 말이 된다.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姓氏들 중의 하나인 金씨의 원류를 알고 보면, 이 마을 형성사를 짐작할 만하다. 金씨 일족들은 이 마을로 이주해 오기 전에는 마을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속칭 ‘듬배물’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한다. ‘듬배물’ 주위에는 지금까지도 봉천수가 고여있는 못이 있고, 또 논밭이 조금 있다. 한편 이 마을의 高씨 일족들은 金씨 선조들이 거주했었던 ‘듬배물’에서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속칭, ‘통물’이라고 하는 물 주위에서 살다가 현재 이 마을로 내려와 살고 있다.

이처럼 이 마을 사람들은 이 곳 남쪽 여기저기로부터 이 터전으로 모여들어 현재의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의 이 터전에 마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남녀 모두 물의 거친 땅과 바다의 험한 발을 일구며 살아야 했다. 여성들은 오전에는 물의 밭에서, 그리고 오후에는 바다 밑 밭에서 소라·전복·미역 등을 따고, 남성들은 낮에는 거친 野山을 일구거나 마소를 돌보고, 또 밤낮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등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왔다.

二. 杏源마을의 信仰形態

마을 사람들은 모든살이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삶을 수호해주거나 관장하는 여러 신들을 모시게 되었다. 이 마을 토지와 마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신인 本鄉神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의 어업·농업·축산 등 생업을 수호, 관장하는 생업수호신 그리고 어린이들의 產育과 질병의 직능을 갖고 있는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을 모셔 왔다.

이 마을에는 본향신이 있고, 또 그 신들의 상주처인 堂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본향당을 바다 윗쪽에 있다고 해서 ‘웃당’이라고 부른다. 신의 來歷譚이라고 할 수 있는 본풀이는 전해지지 않고 그 이름만이 전해져서 男神인 나주관관(또는 나주목사), 女神인 궁전 요왕(龍王) 대부인이 있다. 이 두 신은 부부관계를 맺고 늘 당집에 상주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호적·출산·사망·생업 등 생활전반을 관장하며 수호해 준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이조시대 때부터 소문난 浦口가 있고, 또 어장 조건이

천연적으로 뛰어나 어부와 해녀들이 많다. 때문인지 바로 이들의 생업을 수호해 주는 신이 넷이나 있다.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신인 남당하르방과 남당할망과 큰도안전큰도부인, 그리고 중의대사이다. 이 신들은 포구 안으로 드나드는 어선, 그리고 해녀·어장 등 어업과 관계된 모든 것을 관장하며 모두 이 마을 해변가, 속칭 ‘남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담을 쌓아 마련한 堂 안에 좌정해 있다. 그 당 안에는 石壇을 만들어 제단을 삼았는데, 중의대사라는 신만은 따로 좌정해 있다. 다른 신들은 모두 부정한 음식, 곧 돼지고기를 싫어하지만, 중의대사만은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를 신앙민들로부터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당으로 비념 올 때에는 깨끗한 음식만을 좋아하는 신들에게 먼저 제를 올려두고 나서 나중에 중의대사 신에게 돼지고기를 올려 제를 지낸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봉제받는 여타의 신들에 대한 내력담인 본풀이는 전하지 않지만, 유일하게도 중의대사 신의 내력담인 그 본풀이만은 정연하게 전하고 있다.

중의대사 본풀이

중의대사의 아버지 나라는 강원도요, 어머니 나라는 철산(鐵山)이다. 그 때 그 시절 중의대사는 당과 절이 과란되어 버리는 바람에 제주도에서 들어 온다. 조천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조천 마을의 당신(堂神)인 정중부인에게 인사를 올린다. 정중부인은 ‘땅도 내 땅이요, 물도 내 물이니 이 마을(朝天里)에는 대사가 좌정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대사는 하는 수 없이 조천 마을을 벗어나 동쪽으로 발길을 향한다. 북촌 마을에 이르러 이 마을에서 백일을 보낸다. 하루는 한 집안에서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마을에 사는 김첨지 영감의 환갑잔치날이다.

중의대사는 환갑잔치 집으로 구경가서는 국수 한 그릇을 얻어 먹는다. 먹고 난 뒤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국물은 바로 ‘뚝국물’(돼지를 삶았던 국물)이었다. 중의대사는 뚝국물에 국수를 말아준 사람에게,

“제주에서는 중도 돼지고기를 먹읍니까?”

“대사인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기는 사람 살 고장이 못되는구나.”

그 뒤로 중의대사는 그 마을을 떠나 다시 동쪽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바로 이 행원마을 청천이 동산(지금의 연대봉)으로 올라가 일곱말을 앉아 있어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마을 너븐들 오분작할망(이 마을의 질병수호신)은 들에 자라는 나물을 캐기 위하여 이 동산으로 올라와 보니 대사같은 사람이 앉아 있다. 중의대사가 먼저 오분작할망에게 인사를 올린다.

“소승 뵈웁니다.”

“어느 절 대사가 나와 같은 늙은이에게 인사를 하옵니까?”

대사는 지금까지의 역정을 오분작할망에게 모두 말해 준다. 그 말은 들은 오분작할망은 강남에서 들어온 이 마을 문씨고양할망(이 마을의 產育神)에게로 중의대사를 인도한다.

중의대사로부터 인사를 받은 문씨고양할망은 자기와 같이 좌정해도 좋다고 한다.

문씨고양할망과 같이 살고 있던 중의대사는 어느날 들로 산구경을 나가서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하루 해를 보낸다.

‘제주도 한라산 영기(靈氣)를 구경이나 하러 왔건만 어쩌다가 이 마을로 와서 고생만 하고 있구나!’

자탄가를 부르다가 사망을 둘러 본다. 온 밭에는 조가 무성하다. 중의대사는 그만 이 마을에만 흥년이 들게 조화를 부린다.

이 마을의 향장을 비롯한 마을의 우두머리들이 모여 공론(公論)이 벌어진다.

“다른 마을은 모두 풍년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만 흥년이 들었으니 괴상스러운 일이다.”

이구동성으로 사흘간 공론을 해도 그 까닭을 알아 볼 길이 없다. 한 존장이 묘안을 내놓는다. 이 마을에 중의대사가 와서 산다고 하니, 한번 그 대사에게 여쭙어 보는 게 어떠냐는 것이다. 존장의 말대로 공론마당으로 대사를 모셔 온다.

“대사님, 이 마을의 흥년은 무슨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조화를 부렸기 때문이라!”

“왜 이 마을에만 흥년을 주셨다는 말씀이옵니까?”

대사는 지금까지의 역정을 털어 놓는다. 그 말을 듣고 난 마을의 우두머리들은 이 마을에 좌정할 곳이 있거든 좌정하십시오고 간청한다.

중의대사는 이 마을에 절이 없으니 당으로 가서 좌정하겠다고 한다. 대사는 남당으로 가서 남당하르방을 만난다. 남당하르방은 벌써 대사가 돼지고기를 먹었던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대사는 돼지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었으니 나와 좀 떨어져서 같이 좌정하여 가고 오는 배, 일만 잠수(해녀) 그리고 어장을 차지하여 얻어 먹으며 사시오.”

남당하르방의 말대로 중의대사는 남당 안 한 모퉁이에 제단을 차지할 수 있었

지만 따로 좌정하게 된다.

시월 보름날은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권제삼문을 받으시는 이 마을 수호신 중
의대사님이시다. [玄容駿：「濟州島巫俗資料事典」 참조]

이 마을 생업수호신으로는 이외에도 목축과 관계된 신이 있고, 또 그 신들의
상주처인 당이 있다. 그 신의 이름은 ‘새(牛)하르방, 새할망’이라 한다. 아마
부부관계의 신인 듯하다. 이 신들은 이 마을 동구밖, 속칭 ‘당머세’라고 하는
곳에 좌정해 있다. 이는 바로 이 마을 신앙민들의 생업형태를 반영하는 것이겠
다. 행정구역상 이 마을에 속하는 들로 가 보면 개간하기가 썩 어려운 돌부리
들이 늘어져 있다.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은 땅을 개간하기 보다는 그 대신에
마소를 풀어 놓아 가꾸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이 이 마을에 둘이나 있다. 그 하나는
이 마을 어린이들의 출산을 돕는 助産神이고, 하나는 어린이들의 질병, 특히
피부병의 치유를 관장하는 질병수호신이다. 조산신은 이 마을 셋동네 해변, 속
칭 ‘신영물’이라고 하는 늘 물이 솟아흐르는 구멍에 좌정해 있다고 믿는 신이
다. 늘 물이 솟아 흐르는, 그래서 生生力의 상징일까. 그러나 그 신은 신앙민
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어, 지금은 그 祭日이나 行祭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三. 年中 杏源마을 堂儀禮의 循環體系

이 마을에 좌정해 있는 열한 위의 신들을 위한 祭儀는 그 기회에 따라 두 가
지로 나뉜다. 그 첫째는 마을 사람들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일정한 날에 공동
으로 제를 올리는 정기적 제의이고, 둘째는 마을 신앙민들마다 필요하다고 생
각될 때에만 당으로 찾아가 제를 올리는 부정기적 제의다. 먼저 부정기적 제의
들의 行祭方法을 간단히 살펴 본 후에 정기적 제의의 행제방법도 차례로 알아
본다.

1. 不定期的 祭儀

이 마을 신앙의 부정기적 제의는 어떤 직능의 堂神일지라도 그 행제는 가능
하다. 그러나 반드시 부정기적 제의만으로 행제되는 당이 있으니, 그게 牧畜神

인 ‘쇄하르방’과 ‘쇄할망’을 위한 堂儀禮와 질병수호신인 ‘오분작할망’을 위한 당의례다. 助産神인 ‘신영물문씨고냥할망’을 위한 당의례도 부정기적으로 행제되어 왔을 가능성이 많은 듯하나 신앙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어서 지금은 알 길이 없다. 단지, ‘이런 神도 있었다’는 정도로 그 神名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목축수호신을 위한 당의례는 주로 신앙민들이 방목 중이던 마소를 잃어 버렸을 경우 찾아가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당으로 行祭하러 가기 위해서는 제물을 별다르게 준비하기보다는 반드시 짚신 한 켤레를 준비하고 간다. 당으로 가서는(이때 당으로 간 사람 역시 마소를 가꾸는 신앙민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기가 신고 갔던 짚신을 祭壇에 올리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념만을 간단히 한다.

‘쇄하르방, 쇄할마님, 제가 올리는 신을 신으시고 저와 함께 나서서 제발 잃어 버린 우리 소를 찾아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하여 갔던 신을 꺼내 신고는 마소를 찾으러 산으로 나선다. 神에게 짚신을 바친다는 것은 수호신이 바로 마소를 찾는 데 行祭者와 같이 나서서 助力한다고 믿는 신앙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 마을에 대표적인 부정기적 제의로는 어린이들의 질병수호신인 ‘너븐들 일췌증증’ 또는 ‘오분작할망’이라고 하는 神을 위한 堂儀禮다. 이 당에는 신앙민들의 집안에서 한 어린이가 부스럼 등 몸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 매 7일날을 끌라 당으로 간다. 당의례의 전문적인 司祭者인 심방이나 삼승할망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앙민이 아픈 아이를 직접 데리고 당으로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堂에 갈 때에는 간단히 제물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제주도 어느 연안에서나 많이 서식하는 貝類의 일종인 ‘오분작’·‘수드리보말’ 등과 빛자루 하나다. 당 제단에는 제물을 간단히 진설하고, 패류를 제단에 붙여 둔다. 이는 바로 허물로 인해 살갓에 일어나는 꺼풀을 상징하는 것일까.

堂의 司祭者, 아니면 신앙민이 직접 빛자루를 잡고서는 ‘할마님 몸에 난 허물을 쓸어버리듯, 이 아이 몸에 난 허물을 쓸어 주옵소서……’ 등의 비념을 읊

조리며 제단에 붙여 둔 패류들을 쓸어 버린다. 이라고 나서 피부병이 난 어린 이를 신에게 절시키는 것으로 당의례는 간단히 끝난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제단 위에 걸었던 창호지(紙緘) 한 장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것을 태운 재에다 참기름을 살짝 버무려 허물이 든은 살갓에 바른다. 곧 類似的인 유사를 낳는다고 믿는 類感呪術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향당인 '웃당'과 어업수호신들이 한 데 좌정해 있는 '알당'에서도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부정기적 祭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마을 신앙민들 중 타 지방으로 잠시 나가 살 목적으로 이 마을을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타지방에서 살고 있다가도 잠시 고향에 왔을 때에는 웃당과 알당으로 가서 간단히 제를 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웃당과 알당의 당의례는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행해지는 정기적 제의의 비중이 자못 크다고 하겠다.

2. 定期的 祭儀

이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행해지는 정기적 제의는 웃당과 알당에서 번갈아가며 1년을 주기로 하여 하나의 循環體系를 이룬다.

杏源마을 定期的 堂儀禮의 循環體系

祭儀날짜	祭儀이름	장 소	祭 儀 목 적	비 고
정월초하루	병매(兵馬旗)단속제	웃 당	대변순력신과세제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러 가지 旗들을 단속하기	
정 월 2~4일	대변순력신과세제	웃당을 중심으로 한 마을 전역	본향신을 상징하는 堂旗들이 동네마다 옮겨지면서 신앙민들로부터 新週歲를 받고, 신앙민들에게 1년의 운수를 점쳐 주기	
정월 14일	몰부림(下馬)대제	웃 당	마을 본향신(土地官)을 이당으로 모셔다가 하마(下馬 : 몰부림)하여 좌정시키는 의미의 굿으로 이 마을 1년 운수를 알아보기	

祭儀날짜	祭儀이름	장 소	祭 儀 목 적	비 고
정월보름	요왕황제 국대제	알 당	바다의 세계를 관장하는 龍 王神들을 비롯한 이 마을에 늘 좌정해 있는 어업수호신 들에게 이 마을 신앙민들 의 1년의 풍등과 평안을 빌고 유수를 점쳐보기	다른 마을에서는 2월에 행해지는 '영등굿' 적 성 격의 굿이라고 할 수 있다.
7월 14일	백 중 제	웃 당	우마 증식과 농사 풍요기원	
8월 14일	추 석 제	웃 당	추수감사제	
10월 15일	대제(大祭)	알당을 중심으로 한 그 주 위 들관	마을의 모든 공동수호신들 을 청해다가 기원	여기에서 神人共 同의 놀이판, 곧 '중놀이'가 벌 어진다
설날그믐	개 탁 제	웃 당	이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하 는 분향신에게 온 마을이 1 년을 무사히 보내게 된데 대 한 감사의 뜻을 올리기	

1) 뱃매단속제(兵馬團束祭)

兵馬祭라는 게 사전적 의미대로 '군대등의 행렬 앞에만 세우던 기'라고만 단정해 버리면 곤란하다. 제주도 무속의례 중의 하나에는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보름 사이에 굿을 치며 마을을 돌아다니는 의례가 있다. 이를 두고 東國歲時記 같은 문헌에서는 '화반'(花盤)이라 기록해 두기도 했다. 이게 바로 굿을 치며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놀이, 또는 의례, 곧 굿둠의 뜻이다. (玄容駢: "花盤考", 「韓國民俗學」 9집). 바로 이 굿 둠을 두고 행원 마을에서는 대변순력신과세제라 했다. 그러나 뱃매단속제는 주로 심방들만이 당집으로 가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대변순력신과세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 곧 분향신의 상징물인 堂旗·'몽기'·'뱃맷기'(兵馬旗) 등을 미리 단속해 두는 간단한祭일 것임에 틀림없다.

2) 대변순력신과세제

이 의례는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 수호해 주는 분향신의 상징물인 당기를 비

릇한 여러 기들이 마을 여기저기로 옮겨지면서 신앙민들로부터 新過歲를 받고, 또 신앙민들에게 1년의 운수를 점쳐주는 곳이다. 이 곳은 이 마을 여러 동네별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날이 소요된다.

대변순력과세가 시작되는 정월 초이튿날 아침에는 수심방을 비롯한 여러 심방들이 여러 가지 기들을 들고 당집에서 나온다. 역시 이 때도 이 마을 여러 신앙집단인 '단골'들에게 과세를 받으러 나간다는 내용의 간단한 의례가 행해진다. 이 마을 본향신의 상징물인 여러 가지 기들을 앞세우고 징·북·설쇠 등의 연물(巫樂器)을 울리며 당집에서 가장 가까운 앞동네 동산으로 간다. 바로 사또가 순력길에 나서는 장엄한 행렬을 연상하면 어떨까. 행렬이 한 동네에서도 가장 높은 동산에 이르면, 이미 그 동네 사람들 공동으로 마련한 제상이 설비되어 있다. 그 제상 가까운 곳에 당기를 비롯한 여러 기들을 세운다. 본향신이 한 동네에 좌정해 있는 셈이다.

여러 신앙민들 집집마다에는 제물을 설비한 자그마한 상을 각자 준비하여 올리고, 더하여 보리나 좁쌀 한 말씩을 따로 준비한다. 이 쌀은 심방이 모두 가지고 가서 1년의 생활비로 대충된다.

여기에서 심방은 곳의 첫머리인 초감제를 비롯하여 그 동네 동장, 반장 그리고 상단골 순으로 동네 모든 사람들의 列名을 노래로 울려 본향신에게 축원한다. 그리고 나서 여러 단골들의 본향신에게 세배도 올린다. 맨 나중에는 신앙민들 각자 계절별로 1년 운수의 모든 것을 점받고 또 동네의 운수('도산'이라 함)도 받는다. 그리고 나면 한 동네의 대변순력신과세제는 모두 끝나고, 이내 굿소리를 울리며 다른 동네로 향한다. 이를 '순력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변순력신과세는 이 마을 여섯 동네에서 행해졌었다.

대변순력이 모두 끝나면 다시 당집(웃당)으로 돌아와 당기를 세워 놓고 '본향뚝'祭次로 들어간다. 이는 바로 본향신을 당으로 모셔들이는 의미의 곳이다.

군복차림을 한 수심방이 손에 요령과 신칼을 잡고 서서 연물에 맞춰 굿을 진행해 나간다. 신의 세계의 문(神宮門)을 열고, 본향을 청해들여 모셔다 앉힌다. 이를 '신청계'라 한다. 그 순간은 매우 극렬하다. 수심방은 여러 소미(小巫)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본향신의 신표라고 할 수 있는 '팔찌거리'(제상에 올려뒀던 피복 따위)를 왼손 팔목에 묶고, 두 개의 신칼을 가위 모양으로 하여 오른손 사이에 끼고, 두 눈을 부릅떠 당 입구에서부터 당집 안으로 무섭게 들

어온다. 바로 본향신이 당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마을의 제반사를 관장, 수호해 주는 본향신이 당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인 만큼 여러 신앙민들은 모두 일어서서 양손을 모아 고개를 숙인다.

이것으로 대변순력신과세제는 모두 끝난다.

3) 물부림(下馬)대제

‘물부림대제’는 바로 이튿날에 치뤄지는 ‘요왕(龍王)황제국대제’와 견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웃당인 본향당에서 행해지는 물부림대제가 이 마을 사람들 1년 삶의 모든 것을 본향신에게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 공동으로 올려지는 祭饑라면, 마을 어업수호신들이 좌정해 있는 알당에서 치뤄지는 요왕황제국 대제는 마을 사람들의 바다와 관계된 생업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용왕신을 비롯한 마을 어업수호신들에게 1년 동안 바다와 관계된 삶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한 제의라고 할 수 있다. 두 제의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제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개략적인 물부림대제의 진행과정부터 알아보자.

① 초감제 : 제주도에서 치뤄지는 어떤 무속의례일지라도 그 첫머리에 해당되는 제차이다. 심방은 앉아서 장고를 치며 당굿에 모셔질 여러 신들에게 굿을 하는 장소와 날짜 그리고 굿을 올리게 되는 緣由 등을 일정한 사실로 불러 나간다.

② 예명(列名)올림: 마을 이장을 비롯한 여러 동의 동장, 그리고 여러 단골들 순으로 모든 참석자들의 명단을 장고를 치며 창해 올려 축원하는 제차다. 심방은 ‘이 마을 이장, 성은 X씨 몇 살 받아든 공소(訟事) 웨다.’ 하는 식으로 시작해서 그 가족들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축원해 나간다.

③ 본향듬: ‘본향’이란 마을 사람들의 生死와 戶籍, 곧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 일체를 관장하는 마을 本鄉神이고, ‘듬’이란 그 신을 모셔들임, 곧 본향신을 굿 판으로 顯現시키기다.

이를 위해서는 신계의 문(神宮門)을 연 후에 신을 굿판으로 완전히 모셔들여야 한다. 이처럼 신계의 문을 여는 심방의 몸짓 일체를 ‘군문열림’이라 하고 신을 청해들이는 행위 일체를 ‘신청케’라 한다. 神界의 문을 연 후에 신을 모셔들이는 상징적 행위야말로 제주 무속 의례의 기본 틀이기도 하다.

군문열림: 군복차림을 한 수심방이 손에 신칼과 요령을 잡고 서서 연불소리

[巫樂]에 맞춰 일정한 동작을 보이며 굿을 진행해 나간다. 본격적인 군문열림에 들어 가기에 앞서 ‘배포도업침’과 ‘날과국섬김’ 그리고 이 당곳을 울리게 된 사연인 ‘연유담음’ 등 초감제 때의 사설 내용을 한번 더 간단히 창해두고 나서 본격적인 군문열림이라는 상징적 행위가 시작된다. 이 때부터의 분위기는 대단히 격해진다. 연물소리가 더욱 빨라지고 심방의 춤도 더욱 크게 원을 그려간다. 이 춤을 ‘군문돌아보는 춤’이라 한다.

“나주판관 오시는 문 어찌되며 모름네다.……(중략)……토지관님 오시는 문 돌아올려!”

수심방은 이와같은 사설을 노래하며 요란한 무악에 맞춰 神界의 문을 돌아보는 상징적인 춤을 추고나서 巫占으로 문열림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여러 신앙민들에게 전한다.

④ 신청례 : 神이 거처하는 神界의 문이 열렸으니이제는 바로 당신을 청해들어야 할 차례다. 심방은 감상기와 신칼, 그리고 쌀이 담긴 산판을 잡는다. 그 쌀을 ‘서늑미쌀’이라 한다. 심방은 연물소리에 울동을 맞춰가며 당 입구쪽으로 가서는 감상기와 요령을 흔들다가 신칼로 산판에 담긴 쌀을 몇 차례 뿌리고 나서 다시 제상 앞으로 와 똑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 이것은 신을 청해들이는 행위로 해석되어진다.

신을 청해들이는 행위가 끝나면, 심방은 우선 본향신을 따라 온 雜鬼(군병)들에게 먼저 대접하는 몫으로 술과 밥 등을 당집 밖으로 힘차게 내던진다. 이것을 ‘음복지주잔 내던짐’이라 하는데, 심방이 읊조려나가는 사설의 내용에 따르면, 그 행위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저 먼정 각서본향이 우굽허오는구나. 각서본향이 우굽허오는데 삼천군병(三千軍兵)덜이 저 먼정에 근당(近堂)하는 두하다. 떡 밥 술 기린 삼천군병덜 지사귀자!”

이렇게 여러 군병 잡신들을 대접해 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堂神을 청해들이게 된다. 당신을 굿관으로 청해들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신청례 祭次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심방은 소미(小巫)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신의 신표라고 할 수 있는 ‘팔찌거리’(제단에 올려줬던 피륙 따위)를 오른손 팔목에 묶는다. 또 두개의 신크를 가위 모양으로 하여 오른손가락 사이에 끼고, 두 눈을 부릅떠 당입구에서부터 굿판 한가운데로 무섭게 들어온다. 바로 기다리던 본향신이 완전히 굿판으로 들어온 것이다.

⑤ 자손들 절시키고 소지사름: 본향신이 굿판으로 왔으니 마을 이장을 비롯한 삼헌관이 마을을 대표하여 주잔과 역가상(인정상)을 올린다.

이어서 여러 신앙민들 모두가 10여명씩 짝을 지어 제상 앞으로 가서 끊어 얹아 燒紙를 태우고 절해나간다. 이는 신앙민들마다 마음 속에 간직해 뒀던 소원들을 본향신에게 올리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⑥ 도산받음: 마을 전체의 1년 운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점으로 그 神意를 알아보는 제차다. 심방은 은은히 울려지는 연몰소리에 맞춰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을 ‘금년 아장(앉아서) 이 므에 인명(人命)이 뱃이나 축날꼬마씀(축나졌음 니까)?’ 하는 식으로 神에게 묻고 나서 巫占具인 산판을 초석(신자리) 뒤로 내던진다. 심방은 산판의 樣態에 따라 神意를 읽어 나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을 내의 모든 운수(해녀·배·청년·타향에서 생활하는 사람·분·전염병·오곡의 작황·사망 등)를 무점으로 모두 알아본 후에 이를 모두 종합하여 여러 신앙민들에게 전한다. 이는 곧 신의를 전하는 것으로 ‘분부사림’이라 한다.

⑦ 각산(各算)받음: 1년간 마을 공동의 운수를 알아봤으니 이제서 여러 신앙민들마다 한해의 운수를 제절별로 각자가 알아본다. 이를 ‘각산’이라 한다.

⑧ 철변: 제상의 제물을 모두 내려놓고 제물을 조금씩 따서 일정한 구멍(이를 ‘케’라 함)에 담아 버린다. 이렇게 해서 물부림대제는 모두 끝나는 것이다.

4) 요왕황제국 대제

요왕황제국대제의 개략적인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초감제: 물부림대제 때의 초감제 제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본 초감제 제차에서는 알당에 좌정해 있는 마을 공동어업 수호신의 하나인 중의대사 神에 대한 내력담인 본풀이가 창해진다. 곧 군문열림이나 신청제가 단지 사설로만이 처리되어져 버린다.

② 예명올림: 물부림대제 때의 예명올림과 별다름이 없다.

③ 도산받음: 일반적인 당굿의 패턴으로 봐서는 예명올림 후에 당신을 청해

들이는 의식이 있어야 하나 여기에서는 초감제에서 이미 약식으로 치뤄졌기 때문에 직접 도산받음으로 들어간다. 海業에 관계된 신을 위한 당굿이기 때문에 해업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만 神意를 알아보기 마련인 것이다. 곧 잠수·선박·어부 등 무점으로 1년의 운수를 알아보게 된다.

④ 지(紙)드림 : 바다의 세계를 관장하는 龍神, 그리고 가족 중에 바다에서 죽은 祖上神들에게 신앙민들의 1년간 바다살이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물을 종이(紙)에 싸서 바다로 내던지는 제차다.

당굿에 참여했던 모든 신앙민들은 적당히 자리를 잡고 앉아 백지를 펴 놓고, 그 위에다 자기들이 준비하고 왔던 제물(밥·떡·과일·바닷고기 등)을 적당한 크기의 돌맹이와 함께 넣어 달달 말아 썬다. 구태여 돌맹이를 넣어 쌓은 제물을 썬 종이(紙)가 바다 속으로 잘 가라 앉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떤 이는 두 개, 또는 다섯개씩 싸기도 한다. 이를 '지 썬다'고 하고, 썬 지를 바다로 내던지는 것을 '지 드린다'고 한다.

지를 드리는 대상은 분명하다. 바다 세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용왕신들에게 드리는 지를 '요왕지', 바다에서 죽은 先祖 영혼에게 드리는 지를 '요왕조상지'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지를 '몸지'라 한다. 바다에서 일하다 죽어 바다에서 잠자는 선조 영혼들이 많은 신앙민들인 경우에는 그만큼 지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지'가 싸지는 대로 그것을 들고 바닷가로 내려간다. 해마다 이맘때 지를 내던지는 동산, 그래서 동산 이름이 '지드림동산'으로 내려가 출출이 서서 내던질 자세를 가다듬는다. 심방은 자신이 직접 요령만을 흔들며 일정한 사설을 읊조려 나간다. 그 사설의 내용은, 바다 속 신들이 거처하는 세계의 문을 열어 주십사는 것과 1년 동안의 해녀와 어부들의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십사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예-동이요왕 광덕황문 열려줍서
서이요왕 광신요왕문 열려줍서

.....

요왕황제국님 문, 스만스천 스해용신문 열려줍서

예-오닐 정월보름 이 밑을 요왕황제국대제일로
행원밑을 상, 중, 하단곶덜이 지를 드리져 훑네다.

예-이 지(紙) 드리진

- 선간질(船路)도 발좌(바르게 하여) 줌서
- 요왕질(龍王路)도 발좌줌서
- 어장질(漁場路)도 발좌줌서
- 잠숫질(潛水路)도 발좌줌서
-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이 끝나자마자 여러 신앙민들은 각자 들고 있던 지들을 하나씩 바다로 내던진다.

⑤ 작산받음 : 여러 신앙들마다 1년간 바다살이의 운수를 계절별로 알아본다. 그 후에 서우젯소리를 부르며 당곳에 참여했던 신앙민들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춤판을 끝으로 당곳은 끝난다.

5) 백중제

3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당곳으로 치뤄졌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얇은祭로 간단히 끝내 버린다. 밭에 오곡들이 한참 자라고 들에는 마소들을 내 풀어 놓아 방목할 때인 만큼 오곡의 풍요와 우마 증식을 神에게 빌기 위한 계절 제적 성격의 당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곳의 목적이 그런 만큼 이 날만은 마소를 관장하는 마을 공동수호신인 쇠하르방, 쇠할망 神들까지도 당집으로 청해들었다고 한다.

6) 추석제

계절적으로 오곡을 한참 거둬들일 때인 만큼 새롭게 장만한 쌀로 메를 짓고 떡을 만들어 본향신에게 올려 당곳을 하는데, 추수감사제적 성격의 당의례라 할 수 있다.

7) 대 제

마을 안에 각기 여러 기능을 갖고 여기저기에 좌정해 있는 공동수호신들을 한자리에 청해다 대접하고, 神人共同的 놀이관이 벌어지는 祭다. 바로 이 때야말로 마을사람들로서도 한 해의 노동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제에서도 몰부림대제 때와 같이 ①초감제와 ②예명올림은 거의 비슷하게

치워진다. 그러나 신청례 제차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에서 神人共同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놀이관이 연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③ 마을 공동수호신들을 청해들이기 : 돌부림대제 때 신을 청해들이는 상징적 행위인 ‘본향듬’에서와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마을 사람 공동으로 모셔지는 여러 堂神들을 청해들인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의대사의 신만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면 중의대사 신만이 아직 미참하게 된 셈인데, 그 신만은 상징적 행위가 아닌 직접 극적으로 顯現해 보이기 위해서다.

맨 나중에 중의대사 신만을 청해들일 때만큼은 앞에서 소개한 바도 있는 중의대사 본풀이의 내용대로 신은 바로 이 알당으로 와 좌정하기까지의 전과정을 직접 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극적 행위 일체를 ‘중놀이’라 한다.

중놀이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엄숙했던 분위기는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 흥겹게 술렁이는 분위기가 들어선다.

한 심방은 중의대사 내력담인 본풀이에서와 같이 허름하게 중의 복장으로 갈아 입는다. 중놀이과정에서만큼은 심방의 신분에서 벗어나 중이 된다. 가사를 걸쳐 입고, 머리에는 송낙을 쓴다. 어깨에는 시주를 받아 넣는 자루인 ‘육항장’을 둘러베고, 손에는 지팡이(은주랑 철쭉대)를 짚는다. 심방은 철저히 배고픈 중으로 변신하여 굶판에서부터 약 3백여 미터쯤 떨어진 곳, 속칭 ‘사농물’까지 가 있다.

이쯤해서 수심방은 굶판에서 중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사설을 읊조려나가기 시작한다.

어- 오년 행원먹을 대제일(大祭日)로 중잇도가 근당(近當)하는구나. 오리 정 신청례로!

소미들에 의하여 연물소리가 계속 울려서고, 수심방은 감상기와 신칼을 들어 춤을 춘다. 중의대사를 청해들이는 춤이다. 중의대사 또한 연물소리에 맞춰 굶판을 향하여 서서히 걸어온다. 걸어오는 도중에 배고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여 쓰러지고, 기고, 뒹굴기도 한다. 가끔 쓰러져 누워있는 채로 굶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본풀이의 내용대로 철저히 배고픈 중의

홍내를 낸다. 중이 굿판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굿판의 참석자들이 모두 한눈에 쳐다보게 되어 있다.

반 시간쯤 지나서 중의대사는 祭場, 바로 당입구까지 와 있다. 이쯤되면 십방은 굿의 司祭者의 신분에서 벗어나 알당의 堂神인 남당하르방으로 변신해 있다. 태초 신화 세계의 모방적 행위가 재현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시간은 태초의 시간속의 공간으로 옮겨져 있다. 연물소리도 멈춰지고 남당하르방과 중의대사와의 재담이 시작된다.

대사: 소승 절이 뵈오.

남당하르방: 어느 절 대사요?

대사: 아방국은 강안도(江原道), 어멍국은 철산……[이하 중의대사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배경 등을 본풀이의 내용 그대로 쪽 말해 나간다.]

소미: [잔 가득 술을 따라 들고 와서 남당하르방 곁에 있다.]

남당하르방: 나빈 난봉잔, 들민 든봉잔이 있는 법이온데 이 므을 단꺠덜이 올리는 잔이나 받으시오.

[이 때 잔을 들고 있던 소미는 대사에게 잔을 올린다.]

대사: [잔을 받아 들고서는 달달 떨어 입가 좌우로 갖다 대면서] 좌두로 먹을까요, 우두로 먹을까요?

남당하르방: 코 알로 (곧 입으로) 드시오.

[이를 지켜보던 신앙민들이 웃음보를 터뜨린다.]

대사: [손을 달달 떨어 술을 마시고 나서는 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린다.]

남당하르방: 대사는 뚝국물에 수면을 말아 준 것을 먹었으니 칼도지동경내(소, 돼지 마위에서 나는 불결한 냄새 따위)가 나서 나와 같이 좌정하지는 못하오. 나와는 좀 떨어지게 좌정해 있으면서 이 므을에 오가는 배, 魚場, 魚物, 일만잠수나 차지하여 얻어먹으며 사시오.

대사: 고맙습니다.

[요란한 연물소리가 울려지는 가운데 대사는 춤을 추며 堂 안으로 들어온다. 堂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는 자루를 벌려 선다.]

소미: [잠시 연물소리가 멈춰진 가운데 사설조로] 이 므을 단꺠님께 남꺠(나무 채) 곡석 툐아다(쏟아다가) 남꺠애(철구)에 췘고, 돌꺠애(연자마)에 꺠앙(꺠아서) 삼성·웨성·돌래·월뵤(떡의 이름들) 시꺠제삼문(勸齋三文) 바꺠뵤다.

[다시 연물소리가 요란히 울려지기 시작하면 약속이나 했던 듯이 신앙민들 모두 손에 들고 있던 떡들을 중의대사가 들고 있는 자루속으로 하나씩 넣어 준다.]

배고파 이 마을로 찾아든 중에게 시주를 함이다. 여기서 중은 생기를 회복하고 요란한 연물소리에 맞춰 잔뜩 떡이 들어 있는 자루를 들고 한참 춤추고 나서 그것을 제단 위로 올려 놓는다.]

이것으로 중놀이는 끝난 것이다. 이 마을에 중의 神은 이렇게 들어와 좌정했으니 신앙민들 모두 짝을 지어 제단으로 절한다.

신화, 바로 그 세계가 현재의 공간에서 모의적으로 재현된 셈이다. 신앙민들은 현재의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동시에 태초의 공간으로 와 있다.

④ 도산받음 : 물부림대제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의 운수를 점쳐 본다. 이때는 특히 중의대사 神은 심방의 입을 빌어 여러 신앙민들에게 올해에도 이렇게 시주를 해줘서 고맙다는 神意를 전하기도 한다.

⑤ 지(紙)드림 : 요왕황제국대제 때와 마찬가지로 신앙민들 모두 해변 '지드림동산'으로 내려가 지를 바다로 내던진다.

⑥ 각산받음 : 여러 신앙민들마다 운수를 점쳐본다.

⑦ 만관 : 서우젯소리로 신앙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춤판을 벌여 한참 논다. 이것으로 이 마을의 대제는 모두 끝난다.

8) 개탁제

은 마을이 1년을 무사히 보내게 된 데 대하여 본향신에게 감사의 뜻을 올리는 제의다. 근래에 와서는 거의 치뤄진 바가 없기에 그 실상을 자세히는 알 길이 없다.

四. 杏源마을 堂儀禮의 祭意的 意味

지금까지 행원마을을 대상으로 여러 직능을 갖고 있는 마을공동수호신들의 신앙조직과 1년을 주기로 한 여러 당굿들의 진행과정, 그리고 그 순환체계 등을 살펴봤다.

대변순력신과세제와 개탁제가 1년의 시작과 끝에 있는 의례였다면, 물부림대제와 요왕황제국대제를 시작으로 해서 직접 神人共同이 어우러지는 10월 보름날의 대제는 바로 마을사람들의 삶(경제활동)과 밀접하다. 전자의 두 당굿이

바다와 물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집단의례였다, 후자의 당곳은 그 마무리다.

그 사이에 물의 생활(노동)과 관계를 맺는 백중제와 추석제가 있고, 특별히 출어기(공동어장)에만 치뤄지는 희생(돼지)제의가 있었다.

특히, 중의대사 신에게 바쳐지는 供犧는 마을 사람들 전체의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분을 희생하는 행위라고 할 만하다. 그 희생의 값으로 집단전체의 再生存續은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소위 ‘대제’(大祭) 때마다 놀아지는 춤판과 神人共同의 중놀이 등등, 이 순간만은 힘겨운 물과 바다의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제의라는 매체를 통하여 마을공동의 긴장과 환희의 공간으로 들어섬이다. 여기에서 마을 사람들은 결집된 채 직접 그들 스스로를 고양시켜 일종의 에너지 를 솟아 올리고, 그들의 춤은 이것을 한층 더 격화시켜 하나의 집단의 열광적 상태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이 때에 마을 사람들은 일상적인 속된 생활에서 벗어나 당곳을 통하여 전체가 한데 어우러지는 융합된 새로운 가치가 획득되는 것이다.